

복합재질 폐합성수지 재활용, 환경보전 이바지

세계박람회 재활용 제품 출품 목표



강수영

(주)한성리사이클링 대표이사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자원순환형 경제사회'를 구축하는 것이 화두가 되고 있다.

현재 국내 포장업체의 경우, 발생하는 모든 폐합성수지를 재활용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폐기물이 소각이나 매립 등의 방법으로 처리되고 있는 상황이다.

다량소비와 대량폐기에 따른 환경오염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는 한편 대량생산, 대량소비 시스템으로 인해 지구의 자원은 머지않은 미래에 고갈될 것이라는 예측이 난무하는 지금, 폐합성수지를 전문적으로 재활용해 환경오염을 줄이는 것은 물론, 포장업계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주)한성리사이클링(대표이사 강수영)을 찾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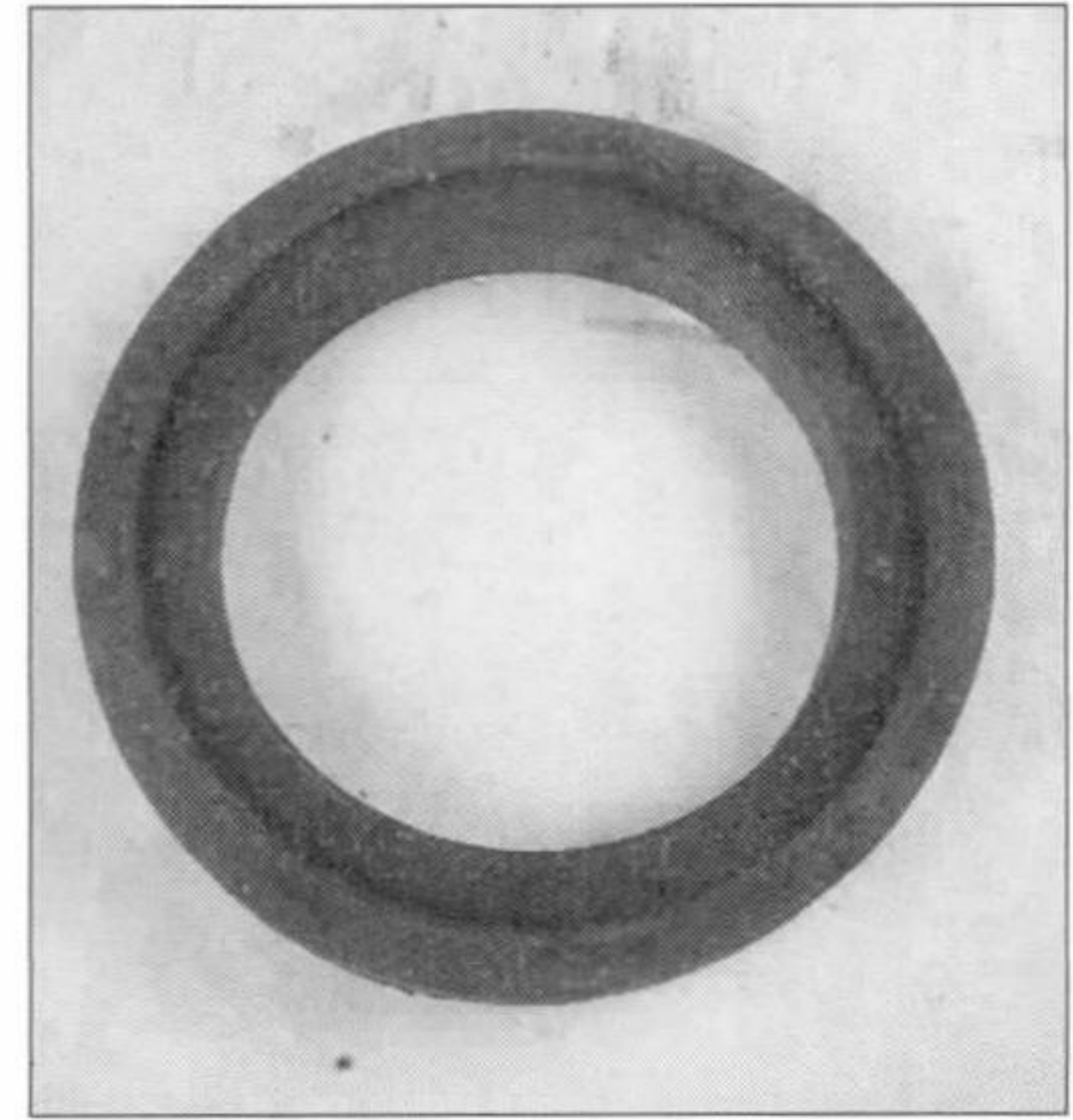
강수영 사장은 포장업계에 8여년간 근무하면서 "폐합



▲ 애니포트



▲ 폐합성수지를 재활용해 생산한 대형 화분 흰스팟



▲ 재활용 활용 제품

성수지를 매립하고 소각하여 없애는 것이 너무 아까웠고 폐기물로 처리되어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이 안타까워 재활용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됐다”고 전한다.

그는 폐합성수지 중 단일재질은 재활용되는 것에 비해, 두 가지 이상의 재질이 합지된 복합재질의 폐합성수지는 단순하게 매립, 소각되는 형태로 폐기되는 상황을 보고, 복합재질의 폐합성수지를 재활용해 원료화 하겠다는 포부를 안고 지난 2000년 5월 (주)한성리싸이클링을 창립하게 된다.

이후 (주)한성리싸이클링은 2002년 폐합성수지 재활용 펠릿원료 생산을 시작으로 이듬해 복합재질 폐합성수지

EPR 생산을 가동했으며 2004년, 복합재질 폐합성수지를 사용한 조경용 화분을 개발하기 시작했다.

폐합성수지를 재활용해 도로가에 놓여있는 대형화분, 건설현장에 쓰이는 수로관, 배수관, 맨홀뚜껑 등의 제품과 여러 가지 제품을 찍는 사출공장에 쓰이는 재생원료를 생산하고 있는 한성리싸이클링의 재활용 노하우는 대외적으로도 인정받아, 2006년 9월 바닥방진패널에 대해 실용신안 등록을 시작으로 지난해 흰스팟디자인에 대해 디자인 등록을 바닥방진패널에 대해 특허 등록과 디자인등록을 완료했다.

무엇보다도 (주)한성리싸이클링은 다년간의 기술개발을

통해 두 가지 이상의 재질이 섞인 복합재질의 폐합성수지를 재활용해 환경보전에 이바지 한다는데 경쟁력은 물론 차별성을 갖고 있다.

포장업계의 오랜 경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한국자원재활용연합회 폐합성수지 회장직과 (사)한국플라스틱자원순환협회 MR협의회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강수영 사장을 비롯, 전 직원이 노력하여 재활용제품 특허 5건, 실용신안 1건, 의장등록 5건 등을 보유하고 있는, 혼합합성수지 재활용업체를 선도하고 있는 기업이다. 이러한 (주)한성의 재활용 노하우는 대외적으로도 인정받아, 전국의 재활용업체들이 소속되어있는 (사)한국자원재활용연합회로부터

HAN SUNG

공로상을, (사)한국플라스틱
자원순환협회로부터 표창을
받았으며 지난 2006년 12월
에는 환경부장관 표창을 수상

하기도 했다.

그러나 업계를 선도하는 재
활용 업체로 두각을 나타내기
까지 (주)한성리싸이클링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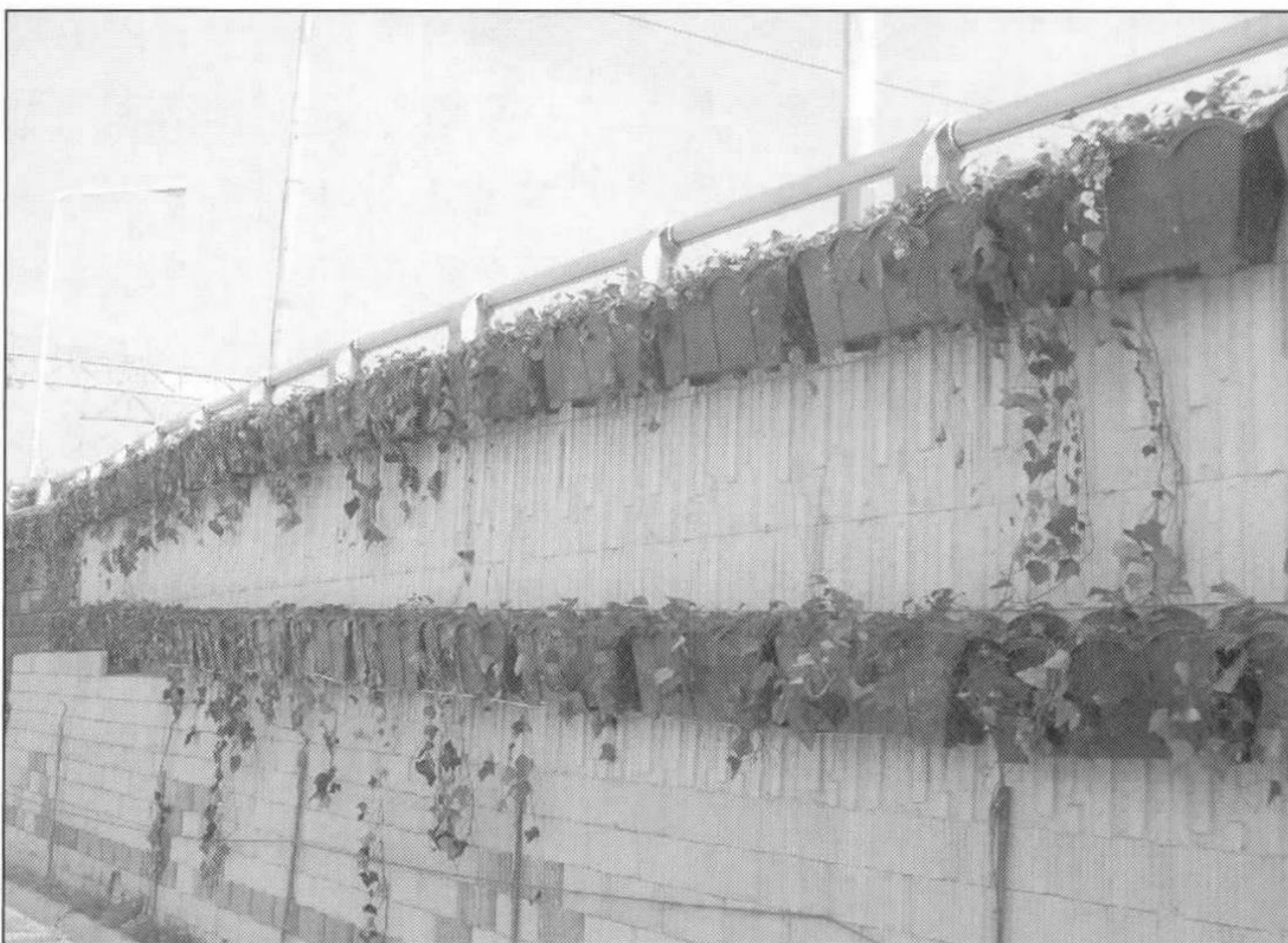
어려움도 많았다.

강수영 사장은 “초창기 제
품개발 할 때 시행착오를 겪
다보니 자본금도 많이 들어가
경제적으로도 어려웠던 시기
가 있었다”면서 “어려운 시기
를 직원들이 잘 견디어 주어
제품을 주문생산 하여 현금을
이제는 받고 팔 만큼 업계
에서 인정받는 업체로 성장했
다”고 자부심을 나타냈다.

우리나라의 경우, 원자재의
95%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
자원빈국으로 재활용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서는
모두가 인식하고 있지만, 현실
적으로 재활용산업에 대한 인
식은 3D업종이라는 편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이다. 따라서 재활용 전문기업인
(주)한성리싸이클링의 경우
에도 어려움이 난무했을 터.

강수영 사장은 무엇보다도
직원을 채용하는 점이 어려웠
다고 토로한다.

또한 힘들게 개발하여 재활



▲ 재활용 제품은 도로가를 장식하는데도 활용된다

용품을 만들어 놓아도 재활용이라는 인식 때문에 소비자들이 꺼려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는 것.

재활용 산업이 힘들고 거친 일 일이지만, 폐자원들이 재활용되어 생활에 유용한 제품으로 재탄생되는 것을 볼 때는 무한한 보람을 느낀다는 강수영 사장은 후손에게 물려줄 이 터전을 정화 하는데 조금이나마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는 가슴이 뿌듯하고 기분이 좋아진다고 전했다.

“매립되어지고 소각되어지는 폐자원을 조금이라도 더 재활용하여 자원화하는 것만

이 환경을 보존하고 점점 고갈되는 자원을 아끼는 길이라는 신념으로 일을 하고 있다”는 강 사장은 “우리 모두가 어렸을 적에 뛰어놀던 깨끗한 강산을 후손들도 깨끗한 자연에서 뛰어 놀 수 있도록 깨끗하게 물려주는 것이 현재를 살아가는 어른 된 사람들의 책임”이라고 피력했다.

지난 달 (사)한국포장협회의 신입회원사로 가입하게 된 (주)한성리싸이클링은 “폐합성수지를 재활용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줄이고, 자원을 재활용 함으로써 크게는 기름 한 방울 나오지 않는 나라에 살면서 국가적으로나 개인적

으로 보람된 일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포부를 밝혔다.

폐합성수지를 재활용 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분리수거일 터. 강수영 사장은 포장업계 종사자들에게 “폐합성수지를 일선 공장에서 배출할 때 합성수지는 합성수지대로 생활계폐기물은 생활계폐기물대로, 종이는 종이대로 분리해서 배출하면 당사와 같은 재활용 업체에서 자원화 할 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당부하면서 “폐자원을 폐기물로 보지말고 말 그대로 폐자원으로 보아 달라”고 전했다.

올해 (주)한성리싸이클링은 전남 여수에서 개최되는 세계 박람회에 재활용 제품을 출품하는 것을 작은 목표로 삼고 있다.

“폐자원은 일반적으로 말하는 쓰레기가 아닌 풍요를 안겨주는 소중한 보물”이라고 강조하는 강수영 사장. 폐자원을 보물처럼 생각하며 친환경기업으로 거듭나고 있는 (주)한성리싸이클링의 발전을 기대해 본다. ☐

박초혜 기자



▲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 재활용품